2026-11-13 12:05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성산제 수변 환경정화 실시...농업용수 수질 지키기 나서

[김준혁]

수질환경 보전회서 상반기 역할분담 이행실적 보고...중점관리 저수지 관리 실태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지난 12일 중점관리 저수지인 성산제에서 호소와 인공습지의 수변 환경을 정비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지난 12일 중점관리 저수지인 성산제에서 호소와 인공습지의 수변 환경을 정비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정화활동은 영암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질환경 보전회를 마친 뒤 이어졌다. 농업용수 오염을 미리 막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열린 보전회에는 지자체와 환경단체, 학계, 언론인, 지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수질보전은 공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농업인, 관계기관이 함께 맡아야 하고 꾸준한 소통과 협력으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회의의 바탕이 됐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이행실적과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관리 노력을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수질환경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모색했으며, 지역주민과 농업인,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질관리 현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저수지 주변 밭경작지를 관리하는 일이 수질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펼칠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선제적인 수질관리와 현장 중심의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